

한자봉 두가게, (Shop-in-Shop)

규제의 벽을 깬 공간에서 또 다른 희망이 만들어진다

자연과 공존하는 일상 속 행복한 모습

인천시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에 위치한 작은 카페.
30평 남짓한 공간 여기저기에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예쁜 꽃들이 눈과 코를 호강시켜준다.
싱그러운 식물들로 가득한 이곳은 카페 안으로 한 걸음을
나디딜 때마다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한쪽 벽에 장식된 드라이플라워들과 이름표들,
수많은 화분들만 보면 흡사 꽃집에 들어선 듯하다.
다양한 꽃과 커피를 만날 수 있는 이곳은 플라워 카페
'루즐리인더원'이다.



상품 다각화로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가다



위즐리인더원 김지연 대표와 플로리스트인 김선미씨

"어서오세요. 루즐리인더원입니다."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삶의 활력을 얻고 행복해질 수 있는 카페를 만들고 싶었어요."

김지연 대표는 위즐리인더원을 창업하게 된 동기를 말한다.

위즐리인더원은 꽃을 좋아하는 사람,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독서를 하고 싶은 사람 등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방문하는 장소다.

플로리스트인 부인 김선미씨는 꽃꽂이 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을 위해 직접 강의를 하기도 한다.

꽃집과 카페의 경계를 허문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 메뉴는 크게 꽃과 커피다.



창업 초기 꽃과 커피의 매출 운영을 1:1 정도로 계획했지만, 꽃 이외의 다양한 식물과 베이커리, 꽃차, 제철과일 스무디
등 점차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고 SNS를 통해 홍보 중이다.

늦은 시간에도 카페를 찾는 손님들이 많다 보니 올해 3월 말에는 사업자 변경을 통해 주류와 간단한 안주거리도
판매하고 있다.

"플라워 카페인 만큼 안주 이름도 꽃 이름에서 따왔어요. 손님들이 재미있어하시더라고요."

운영을 시작한 지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루즐리인더원은 계속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벽에 가로 막힌 좁은 공간, 꽃 한 송이 팔아도 불법

지난해 12월 플로리스트인 아내와 함께 일을 하고 싶던 김지연 대표는 플라워 카페 창업을 결심한다.
비수기와 성수기가 극명한 꽃집 매출에 커피숍을 운영하면, 분명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았다.
"커피 전문점은 음식업종이기 때문에 구청 위생과에 영업신고서를 하고 신고증을 받은 다음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하더라고요."

위생교육 이수와 보건증 발급 등을 끝내고 마침내 소매점과 휴게음식점 2개의 사업자 등록을 모두 마친다.

김지연씨가 한창 바쁘게 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임대받은 점포 두 곳의 인테리어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사업자등록은 두 개를 냈지만, 하나의 가게에서 팔아야 시너지 효과가 있었기에 비용을 들여 확장공사를
진행했다.

“벽을 허물었는데, 다시 메우라고요?”

인테리어 시공을 끝낸 가게 앞에서 김 대표는 망연자실했다.

시청 직원들의 실사 후에 내려진 결정은 다시 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에 따라 조리시설 및 커피 등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영업공간은 다른 업종과 사방이 칸막이로 구분돼 있어야 했다. 타업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칸막이로 커피숍과 완전히 분리를 시킬 경우에만숍인숍이 허용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카페에서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의류나 책 등을 함께 파는 업체들은 모두
불법인 셈이다.



당장 가게 운영을 위한 물건들을 오픈 날짜에 맞춰 주문을 해놓은 상황에서 다시 가게 인테리어를 바꾸기가
힘들었다. 무엇보다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커튼이나 자바라 파티션을 치는 것도 고려를 했지만, 막혀있는 벽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했다.

“벽을 두고 운영을 하라는 말은 사실상 매장을 두 개로 나누어 운영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당초숍인숍 개념의
카페는 할 수 없었던 거라 속상했죠.”

만약 지키지 않을 경우 시설개수명령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시설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영업정지를
받게 되고 4차례의 영업정지를 받은 후에도 개선하지 않은 영업장은 폐쇄조치가 됐다.

결국 김지연씨는 꽃을 파는 것을 포기하고 커피숍으로 운영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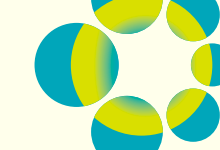
꽃은 커피숍의 인테리어를 꾸미는 것에만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곧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예정대로 플라워 카페로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5개월간의 노력, 손톱 밑 가시를 뺐다.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숍인숍 규제에 대한 목소리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인 곳은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었다.
2015년 6월 24일 중기청은 중소기업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역시숍인숍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중기청에서는 즉각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규제 개선을 요구했지만, 식약처의 입장은 달랐다.

“음식과 다른 제품을 함께 팔다 보면 자칫 제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음식을 섭취하는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제는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식약처 식품정책조정과 김중수 사무관은 국민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을 위해 규제는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말한다.

식약처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창업 여건을 개선하는데에는 긍정적인 입장이었지만 그렇다고 쉽사리 규제를 풀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9월 9일 중소기업 ·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도숍인숍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법령 · 제도 개선 사항을 점검해 제도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한다.



중소기업 ·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모습

숍인숍 규제에서 완화까지!

2015.06.24

중기청 간담회

중소기업 현장 의견 수렴

2015.09.09

중소기업 ·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불합리한 규제 법령 · 제도
개선 의견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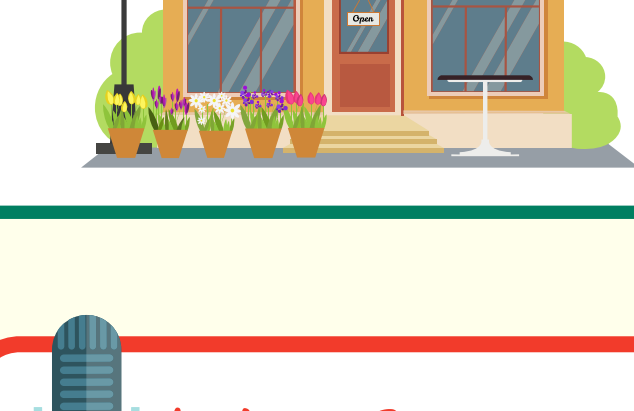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 안전처 등

관련부처
숍인숍 시설분리 의무 완화
방안 추진



개선전

· 식품접객업 영업장은 영업 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층 또는 벽으로 분리



개선후

식품접객업 특성에 따라 시설 간 분리 및 구획, 구분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

* (분리)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 (구획) 칸막이 · 커튼 등으로 구분/ (구분)
선 · 줄 등으로 구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5년 12월)



Interview

루즐리인더원 김지연 대표



“플라워 카페는 굳이 꽃을 사거나 꽃꽂이를 수강하지 않더라도 커피 한잔
마시러 누구든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나의 공간에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꽃으로 힐링할 수 있는 멀티
카페를 만들고 싶었죠. 특히나 부인이 15년 동안 꽃을 배우고 만들고 직접
창업도 했던 경험이 있어, 꼭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루즐리인더원인 규모는 작지만 감성을 공유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

“초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두 개의 사업장으로 분리 공사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꽃가게를 포기해야 했는데, 다행히도 규제완화로
사업장을 분리하지 않고 예정대로 플라워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창업 이후 지속적으로 방문 고객들이 많아지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부인과
같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더욱 행복합니다.”



Interview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김중수 사무관



“숍인숍은 건물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 투자비용을 저렴해 소자본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숍인숍을
적용하기에 ‘카페’만큼 좋은 아이템이 없을 겁니다. 카페는 음식점은 물론이고
의류, 갤러리, 미용실, 꽃집, 휴대폰 매장, 서점 등의 다양한 매장에 들어가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식품위생법의 규제가 큰
벽으로 다가온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관련부처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규제
경감으로 소비자의 편의가 제고되는 것은 물론 영업자의 시설투자자 경감돼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을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 개선 체감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